



제목	Treasures from the Oxus: The Art and Civilization of Central Asia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I.B. Tauris & Co Ltd.
발행일	2017. 9. 26.
저자	Massimo Vidale
출판국가	미국
페이지수	264
ISBN 또는 ISSN	978-1784537722

내용 요약

현재 아프가니스탄과 타지키스탄 접경 지역인 옥수스(Oxus)강의 위대한 문명은 고대 세계의 잊혀진 보석 중 하나이다.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1,500 마일의 자연환경으로 이란 제국의 북부 지방과 우랄 알타이어족의 투라니(Turanian) 외곽 지역 사이의 자연적인 국경 역할을 해왔다. 옥수스강은 Achaemenid와 후에 페르시아 제국의 세력 안에 있었지만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선사시대부터 옥수스 문명이 시작되었고, 기원전 6세기 키루스 대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미 고도의 청동기 시대 문화가 번영하였다.

이 책에서는 청동접시와 그릇 및 생활용품과 150개의 도판사진을 통해 실크와 식료품의 원시 무역을 포함하여 이 지역의 매혹적인 역사, 예술 장식품 및 그 외 이국적인 신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기원전 2300년에서 1800년 당시 이 지역의 복식을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물로서 25점의 녹니석(綠泥石, chlorite)과 석회암(limestone)으로 된 '박트리아 공주(Bactrian Princesses)'라 명명된 조각품들을 들 수 있다. 박트리아 공주의 경우 수메르의 카우나케스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원피스형태로 착용되고 있다. 박트리아 공주의 카우나케스에서 특이한 점은 그림 84와 85의 경우 나뭇잎사귀 모양 그대로 조각되어 있어 기존 모피 조각설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되고 있다. 그 외 남성복식 연구자료로서 석회암 소재로 된 6점의 '얼굴에 상처가 있는 용 인간(man-dragon with balafres)' 조각품을 들 수 있다.